

# “올 여름 낭만버스와 시간 여행을 떠나요”

### 여수시, 내달 5일부터 오픈탑 2층 버스 무대로 버스킹·공연 등



여수시가 시티투어에 연극공연과 이벤트를 접목한 '낭만버스'시간을 달리는 버스를 다음 달 5일부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픈탑 2층 버스를 타고 이순신광장을 출발해 야경 명소인 소호동동다리, 돌산대교, 거북산대교, 종포해양공원 등을 두 시간 일정으로 돌아보는 일정이다.

특히 시는 버스를 공연장으로 낭만버스킹과 악공청(조선시대 음

악 담당 기관), 신지끼(거문도의 인어 전설) 등 여수의 역사와 설화를 접목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운행 도중에는 여수 퀴즈대회 가족과 연인에게 전하는 유리병편지 이벤트, 사랑의 세레나데와 같은 이색 이벤트를 진행한다.

운행시간은 매주 금·토요일, 공휴일 저녁 7시 30분이다. 금·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기존처럼 야간 시티투어가

운영된다.

낭만버스 탑승을 위해서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포털(<http://ok.yeosu.go.kr>)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요금은 성인·대학생 2만원, 경로우대자·국가유공자·군인·장애인·학생 1만5000원, 미취학 아동 1만원이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8월 한 달간 전 탑승객을 대상으로 50%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결합된 여수낭만버스 여수의 감성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낭만버스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자체 시티투어 육성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6개월간 사업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여수=송기홍 기자

# 정남진 장흥물축제 앞둔 탐진강 “때 빼고 광 내고”

### 사회단체·공무원 800여명 탐진강 일제대청소 실시



제10회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탐진강 기꾸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장흥군은 25일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서 지역 사회단체 회원과 공무원 800여명이 참석해 일제대청소를 벌인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축제인 물축제를 앞두고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막고 깨끗한 지역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민과 공무원이 힘을 모으고 나선 것이다.

아날 대청소 참여자들은 장흥교 아래 징검다리에서 여울의 이끼를 제거하고 탐진강변 일대에서 환경정

리를 실시한다.

장흥군은 최근 10회째를 맞은 물축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장흥교에서 석대보에 이르는 구간의 뜰베기 작업을 완료하고 수변공원과 징검다리 주변 정비도 마쳤다.

수변공원 주변으로는 형형색색으로 꾸민 꽃밭과 꽃가리를 조성해 물축제 관광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물축제장 곳곳에 그늘막과 행사부스, 대형 마구조물도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성 군수는 “물축제 10돌을 맞아 신선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 준비는 물론, 관광객과 주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원하고 깨끗한 탐진강에서 올 여름 즐거운 추억 남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장흥읍 탐진강변과 편백숲우드랜드 일원에서 23°C 정남진 장흥으로 발길을 돌려라 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장흥=김종민 기자

# 무안군, 무안생태갯벌유원지(가칭) 대국민 명칭 공모

### 국내 최초 습지보호지역·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



무안군은 무안생태갯벌센터 일원에 조성된 무안생태갯벌유원지(가칭) 명칭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무안생태갯벌유원지(가칭)는 국

내 최초 습지보호지역이며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무안갯벌과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고, 즐기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무안군에서 2013년부터 무안생태갯벌센터 일원에 분재전시관, 로컬푸드 판매장 황토찜질방, 황토이글루 및 울막, 국민여가캠핑장, 자연친화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이러한 시설들을 아

우르고 천혜의 지원인 무안갯벌과 황토의 관광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할 계획으로, 공모에 관심이 있는 이는 무안군청 홈페이지([www.mu-an.go.kr](http://www.mu-an.go.kr))에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접수 기간은 8월2일까지로 자체심사를 거쳐 8월21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은 최우수상 1명(시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50만원), 장려상 3명(20만원), 가작 15명(무안생태갯벌센터 입장권 4매)에게 수여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갯벌유원지(가칭) 명칭 공모를 통해 단순한 시설물 차원을 넘어 해안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명칭이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홍 기자

# 해풍 맞은 ‘완도 해변포도’ 출하 시작

### 타 지역 比 당도 높고 기능성 물질 함유↑...우수성 입증



정장바다 수도 완도에서 해풍 맞고 자란 해변포도가 21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

완도군은 지난해 2월 정장바다 해안가에서 해풍과 해무를 맞고 자란 포도의 경우 당도가 완도산이 15.2Brix 타 지역 14.8Brix에 비해 3.0% 높고 기능성 물질 안토시아닌은 평균 1.30mg 타 지역 1.13mg 대비 13.5% 높았으며, 무기물 칼리(K) 함량도 8.8% 높게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해 완도 해변포도의 우

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바이오기능성 생성장치 지원을 통해 완도자연그대로 고품질 포도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이 차별화 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군외면 남선리 김준환 농가를 방문해 포도 작황 상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작지만 강한 완도농업을 위해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적

극 활용해 명품 포도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완도 해변포도는 시설재배의 경우 7월 20일 전후 수확을 시작하고 노지재배는 8월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수확을 한다.

완도군 군외면 원동에서 해안도로를 이용하면 싱싱하고 달콤한 포도를 현장에서 직접 구매 할 수 있다.

# 여수시, 국동항 수변공원 푸드트럭존 조성

### 영업장소 2곳 지정...내달 7일부터 1년간 운영 예정

여수시 국동항 수변공원에 다음 달 7일부터 1년간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여수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변공원 내 2곳을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운영자 2명을 모집한다.

시는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변 상권과 다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장소를 결정했다.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음식 냄새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종류도 커피·주스·아이스크림·빵 등을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업과 제과점업으로 한정했다.

신청자격은 2017년 1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기간 내 시 식품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푸드트럭 운영자로 선정 후에는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LPG 시공 검사, 대표자 위생교육, 종사자 건강 진단 등 영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